

문제 1

1. “제시문 가는 죽음을 동종은 모두 보편적인 한 가지 방향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불명확하며 근거또한 충분치 않습니다.

2. 제시문 (나)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행위의 사유를 구별했다는 논지도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시문 (나)는 (가)에 다르다면 인간이 아니기에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특수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논지가 펼쳐져야 하는데, 이는 제시문 불일치로 보여집니다.

3.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문 다는 인간과 동물을 제시문 가와 같이 구별짓지 않는다. 인간 또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애착과 함께 생존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마찬가지로 부응하는 존재일 뿐이며 그들은 차별화된 행위나 사고를 보이지도 않는다.”

이 또한 제시문에서 서술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한 논지입니다. 인간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진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죽음을 인지하는 것은 (가)에 따르면 인간만 가능한 것이기에 죽동물은 죽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4. 내용상으로도 제시문에 기반한 내용들이 아닌 추측성 논지들로 답안이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비교 기준을 가진 비교답안이 아니라 제시문 가/나/다를 요약하는 형식(형식상 요약이라는 의미이며, 내용상으로는 요약도 아닌 추측성 논지로 구성 됨)으로 형식마저 불완전합니다.

5. 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며, 난이도가 낮은 15, 11년도 기출문제라도 완벽히 분석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